

삼겹살·빙수까지... 외식배달 안하는게 없다

1~2인 가구 배달 음식 선호...원룸가 프랜차이즈 확산

업주는 매장 운영비 부담 줄여 장점...업계간 경쟁 치열

지역 외식프랜차이즈 업체가 속속 배달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매장을 방문하기보다 배달주문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면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향후 외식업 창업에 있어 배달서비스가 필수요소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연결된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배달음식의 대명사였던 짜장면과 치킨, 피자, 족발 등을 넘어 이젠 구운 삼겹살과 빙고, 분식류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먹었던 삼겹살과 갈비 등 구이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전문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존삼겹'과 '배달돼지', '배달삼겹돼지' 등 삼겹살과 목살 등 음식을 배달을

운영하지 않고 오로지 배달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가 전남대·조선대 후문, 쌍촌동 등 원룸가에 세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수완·침단지구 등 신혼부부나 1~2인 가정이 밀집한 지역에도 속속 가맹점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외식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만 70여개의 삼겹살 배달전문 프랜차이즈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빙과류' 역시 배달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랜차이즈 '설빙'은 배달하는 동안 빙수가 녹지 않도록 은박 보냉백에 포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광주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베트남쌀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들도 배달서비스에 동참하고 나섰다.

배달서비스를 도입한 에머이 점단점 관계자는 "주변에 원룸 등 1인 가구가 많고 '아점'(아침 겸 점심식사)이자 해장을 위



해 쌀국수를 찾는 젊은층 고객이 늘고 있다"며 "점차 배달이 늘고 매장도 배달의 매출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식업계가 배달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벗어나 음식배달만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배달 대행업체의 성장이 한몫했다

는 분석이다. 배달원을 고용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배달은 공짜'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점도 유효했다.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번거로움보다 차라리 배달료를 지불하는 게 낫다는 젊은 고객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외식업계의 배달서비스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면서 배달서비스가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굳이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구할 필요도 없고, 조리공간만 있으면 대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스마트폰 배달주문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1인 가구도 늘면서 앞으로 상승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배달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식업 창업에 앞서 필수요건으로 배달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8.45 (-11.37) ↓ 금리 (국고채 3년) 2.26% (-0.02)

↑ 코스닥 855.62 (+5.33) ↑ 환율 (USD) 1081.20원 (+3.60)

광주 경제 '부진의 늪'

1분기 광공업생산·건설수주액 줄고 인구 유출 심화

광주 경제가 암울하다. 광공업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출·건설 수주 모두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고 인구는 빠져나가는 등 경기 지표 대부분이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분기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광주·전남, 전북·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광공업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6% 감소했다.

특히 광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고 전남은 전기·가스업,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3.8% 감소했다.

광주의 1분기 건설 수주액은 3220억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줄어 1년 전보다 3.2% 감소했다.

반면, 올 1분기 광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억 달러에 달했다. 인구는 지난 1분기 2126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고 실업자는 전년 동기 같은 기간보다 63.3%(1만2600명)이 늘었다.

전남은 민간 부문 건설 발주가 늘어나면서 1분기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8% 늘어난 1조9400억원에 달했고 1분기 수출도 석유정제, 화학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2.6% 늘어난 88억 달러로 집계됐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귀뚜라미보일러 전 대리점 서비스 강화

두달간 기술교육...최적 난방솔루션·사후관리 향상

귀뚜라미보일러가 비수기를 이용해 현장 서비스 직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향상에 나섰다.

귀뚜라미는 16일부터 2개월간 경북 정도 기술교육원에서 보일러 서비스 기사 700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2018년 전국 대리점 서비스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귀뚜라미는 신입사원과 경력자로만 구분했던 교육 과정을 올해부터 지역별, 경력별로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수도권과 지방, 경력자와 신입사원으로 나누어 수도권 경력자(3개 과정 350명), 지방 경력자(1개 과정 250명), 신입사원(1개 과정 100명) 등 5개 과정(700명)에서 진행된다. 경력자는 2박 3일, 신입사원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제품별 특징, 구조와 작동원리, 증상별·부위별 수리 방법, AS 사례교육 등으로 보일러 성숙기를 대비해 제품별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교육 등도 이뤄진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귀뚜라미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대리점 서비스 기술 교육 장면. (귀뚜라미 제공)

"소비자의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최적의 난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세계 '서머 패션 페스티벌' 인기

여성 패션 매출 전년비 39%·남성 20% ↑ ...특집행사 강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난 11일 평년보다 1주일 빨리 개최한 '서머 패션 페스티벌' 이후 여름상품 매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까지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여성패션 부문은 무려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패션 부문은 19.8% 신장했다.

'질스튜디오'(40.3%), '지고트'(35.0%), '구호'(13.0%), '바네사브루노'(6.9%) 등이 여성패션 부문의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남성패션 부문에서는 '루이까포트 셔츠'(15.5%), '카운테스마라 셔츠'(10.0%), '피어리'(7.2%) 등이 매출 상승

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서머 패션 페스티벌' 2주차 특집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8~20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쉬즈미스 세계적 상품 특집전'과 '서머 남성재킷 특집'을 연다. '쉬즈미스 세계적 상품 특집전'에서는 여름 블라우스를 2만9000원~5만7000원, 원피스를 3만9000원~9만9000원에 판매한다.

역시 상품으로 겨울 재킷이나 포피 코드까지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서머 남성재킷 특집'을 통해 6개 남성 브랜드의 시원한 여름용 재킷을 7만9000원~25만5000원에 만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 2곳 '월드클래스 300' 선정

누리텔레콤·광명전기...한전, 컨설팅 등 자체 지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누리텔레콤과 광명전기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300'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해 5년간 R&D·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누리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검침솔루션인 AMI와 통신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전력 IoT 기업이다. 2015년 9월 한전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말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축해 스웨덴·노르웨이·가나·베트남 등 전 세계 46개 해외

전력사에 AMI 독자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광명전기는 배전시스템·가스절연개폐기(GIS·E-GIS)·차단기 등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6년 6월 한전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에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신축, 에너지저장장치(ESS)·사물인터넷분야 등을 아우르는 전력전문기업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을 대상으

로 '에너지밸리 스타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R&D 협력, 전문기술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 300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중 매년 1개사 이상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배출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해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가정의 달' 13개 노선 할인

내달 8일까지 국제선 최대 35%·국내선 80%

아시아나항공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8일까지 가족여행 추천지 13개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

아시아나는 이달 말까지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임의 최대 35%, 국내선 운임의 최대 80%를 할인한 특가에 판매한다.

해당 노선은 국내선 4개(제주~김포·광주·무안·청주)와 국제선 9개(인천~후쿠오카·홍콩·하와이·삿포로·방콕·하노이·오사카·사이판·싱가포르)이며 7월 19일까지 출발·도착하는 항공편이 대상이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